진각종, 창원심인당 신축…“포교도량 우뚝”

11월 13일 헌공 및 보존이운불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설립
“창원시민 마음수행처 되길” 발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종은 11월 13일 창원심인당 헌공불사 및 본존이운가지불사를 봉행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설계에 따라 건설된 산업도시 창원시에 자리 잡은 창원심인당이 법계에 헌공됐다.

진각종(통리원장 도진)은 11월 1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심인당에서 헌공불사 및 본존이운가지불사를 봉행했다.

헌공불사는 금강아사리 경정 총인, 교법아사리 통리원장 도진 정사, 행법아사리 교육원장 효명 정사의 본존이운가지불사에 이어 △강도발원(총무부장) △오대서원 및 유가삼밀 △경과보고(건설국장) △기념사(통리원장) △축사(부산교구 금강회장) △인사말(창원심인당 금강회장) △주교인사 △공로패 증정 △회향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한 창원지역 전체가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중추로 자리하고 있듯이 창원심인당 역시 종단의 교화불사를 견인하면서 경남지역 포교활성화의 중심으로 자리하리라 믿는다”면서 “창원심인당 이전 신축은 신교도 여러분들의 수행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함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부응하는 새 도량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교구 금강회장 안인수 보살은 축사에서 “창원심인당 헌공불사 인연공덕으로 심인당 신교도는 물론 나아가 창원시민들에게 마음의 수행처가 될 수 있는 큰 도량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창원심인당 금강회장 보현심 보살은 “창원심인당을 더욱 넓고 크고 둥근 마음으로 화합하고 용맹정진해 더욱 빛나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심인당 주교 일연 정사는 “모든 분의 원력으로 심인당이 원만하게 법계에 헌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원력으로 바탕으로 심인당 발전은 물론 종단발전과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정원장 능원 정사, 총무부장 겸 서울교구청장 신혜 정사, 교무부장 정법 정사, 대구교구청장 선덕 정사, 부산교구청장 현강 정사, 경주교구청장 원주 정사, 경북교구청장 대원 정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 정사,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원혜 정사, 위덕대 총장 회성 정사 등 스승과 총금강회장 정명 각자 등 신교도들이 참석했다.

한편,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심인당 건설에 힘쓴 (주)무겸종합건설 김원연 대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창원심인당은 진기 75(2021)년 10월 21일 제430회 정기종의회에서 신축을 결의하고 진기 76(2022)년 8월 12일 지진불사와 진기 77(2023)년 6월 22일 상량불사를 봉행했다. 연면적 1,238.61㎡,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3층에 심인당. 4층에 법담실 및 자성학교, 5층에 사택이 자리하고 있다.

100돌 강릉 관음사…“미래 100년으로 도약”

11월 12일 100주년 기념법회
“도심 포교당 전형 만들 것”



관음사는 11월 12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건 100주년을 맞은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주지 무주)가 새로운 100년으로 도약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관음사는 11월 12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전법과 미래 세대 포교에 진력, 도심 포교당의 면모를 선보일 것을 다짐했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 민족의식 제고와 불교 근대화를 목적으로 창설된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는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와 용주사 수원포교당 수원사와 함께 근대 한국불교 3대 도심포교당으로 손꼽힌다.

특히 금천유치원, 장학재단, 강릉불교대학, 장애인 복지관 등 교육과 포교 불사에 역점을 두고 역사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행복나눔봉사회, 청광회, 반야회, 수자타회 등 신도 중심의 봉사단체를 통한 무료급식과 연탄나눔, 이웃돕기 등 활발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법어에서 종단과 발맞춰 도심 포교당을 중심으로 전법에 더욱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전법을 향한 일념으로 청소년, 청년대학생 불교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포교 전당을 만들겠다”면서 “희망적인 포교당,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는 전환의 패러다임을 일궈내, 도심포교당의 전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음사 주지 무주 스님은 신도들에게 “힘을 모아 미래 100년을 향한 포교당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스님은 “포교당을 지켜내는 건 불자 여러분”이라면서 “불교의 미래 100년을 위해 강릉 중심가에 불은이 퍼져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스님은 최근 1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원생이 급격히 줄면서 폐원 절차를 밟게 된 금천유치원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은 문을 닫지만 포교당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사찰과 불교 발전에 힘쓴 신도들에게 공로패와 표창패를 전달했다. 또 창건 100주년을 맞아 실시한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축하했다.

유영숙 관음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에서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내일의 희망을 가꿔나가고, 탐내고 성내는 마음을 떨쳐내고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음사는 1922년 창립된 ‘강릉불교포교소’에서 시작됐다. 강원도를 기반으로 금강산 유점사와 오대산 월정사가 주축이 됐다. 포교를 제일 과제로 전법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불교발전을 견인해왔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군산대 불교동아리, 공백기 깨고 재도약

‘군산대 불동이들’ 창단식
24교구 선운사서 활동 지원



오랜 공백기를 가지고 있던 국립군산대 불교동아리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군산대학교 불교학생회는 11월 4일 군산 관음사(주지 도천)에서 창단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군산대학교 불동이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군산대 불교동아리는 관음사 주지 도천 스님, 고창 마하사 주지 정혜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전법위원들이 지도법사로 참여한다. 지도교수는 군산대 철학과 권순홍 교수가 맡았다.

현재까지 16명의 학생이 참여한 군산대 불교동아리는 철학과 학생이 7명으로 가장 많다. 청년뿐만 아니라 올해 철학과에는 60대 이상 만학도도 입학해 불교동아리가 세대 차이를 뛰어넘은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리 창단법회에는 군산 관음사 주지 도천 스님, 선운사 재무국장 수찬 스님, 현적 스님 등 전법위원들과 권순홍 교수, 동아리 학생들이 참석했다. 선운사는 군산대 불교동아리를 위해 템플스테이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표창장 수여를 비롯해 적극적인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군산대학교 불교동아리는 과거 오랫동안 활동해왔으나 회원 수 부족 등의 원인으로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다. 다행히 지난 2011년 재창립법회를 봉행하면서 잠시 활동을 재개했지만 신입회원 부족을 이유로 다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 찾는 공부는 무엇인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박종래 교수 초청 강좌



‘한마음을 찾는 공부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특별강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11월 12일 경내 강당에서 한마음과학원 회원인 박종래 교수(서울대 공대)를 초청해 신도들을 위한 강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강좌는 △제1부 우리 공부의 핵심은? △제2부 ‘나’의 실상? △제3부 ‘내 삶’의 실상? 삶은 고가 아니다! △제4부 내 한생각에 일체 움직이리라! 주제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박종래 교수는 대행 스님 법문과 뜻풀이 반야심경을 예로 ‘한마음’에 대한 과학적, 신행적 해설을 진행했다.

혜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도분들에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강연이어서 초청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행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을 비롯해 혜전 스님과 김용섭 신도회장, 김희남, 최성휴 고문 등 2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 나갑시다”

증심사, 11월 15일 ‘오백나한대재’ 봉행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는 11월 15일 경내 오백전에서 ‘계묘년 오백나한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증심사 오백나한대재는 오백전에 모신 석가모니불, 10대 제자, 16성중, 오백나한께 공양을 올리고, 신도들의 올바른 신행 활동을 독려하는 의미로 매년 봉행하고 있다.

이날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중국 방거사의 게송을 읊으며 “오늘 이 자리는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선발하는 자리이다. 응시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고, 면접을 보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안의 부처님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마음을 비우면 내 안의 부처를 맞이할 수 있다”며 “육바라밀을 수행해 삼독을 비우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자향회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노전 종문 스님, 선재사 주지 진훤 스님과 대중스님들의 오백대재 기도가 이어졌다. 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중현 스님의 법문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은사, 구례군에 쌀 2000kg 기부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가 11월 14일 구례군청(군수 김순호)에 사찰과 신도들이 마련한 쌀 2000kg(6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대진 스님, 김순호 군수, 김종순 천은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들이 참여했다.

대진 스님은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교계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전달해주신 천은사 사부대중의 마음을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쌀은 구례 희망나눔가게, 산도나누고가게,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구례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김종순 신도회장은 “천은사가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는 사찰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지스님의 큰 뜻에 신도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남 대흥사 ‘호국대성사 서산대재’ 봉행

11월 11일, 경내 표충사에서
호국대전 회향 위한 공청회도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나선 호국불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다.

해남 대흥사(주지 법상)는 11월 11일 서산대사 탄신 제503주년을 기념하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재’를 경내 표충사에서 봉행했다.〈사진〉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 이날 행사는 조실 보선 스님, 회주 월우 스님, 주지 법상 스님과 본말사 주지 등이 참여해 유교식 제향의식과 불교 법요식이 진행됐다.

이날 제향은 초헌관 김성일 전남도의원, 아헌관 김광철 완도경찰서장, 종헌관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이 참여해 의식을 집도하고, 명현관 해남군수.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 윤재갑 국회의원, 김동하 해군 제3함대 참모장 등이 헌관, 집사로 참석해 서산대사에게 유교식 제향을 올렸다.

법요식에서 주지 법상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참혹한 이야기는 이념과 욕심의 대립, 그리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쌓아온 감정의 충돌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현실을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향한 자비의 마음과 자비심을 실현해 나가는 스스로의 정진행에 달려있다. 하루속히 지구촌에 평화의 함성과 행복의 웃음이 가득하길 발원한다”고 빠른 전쟁 종식을 기원했다.

보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500년 전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은 서산대사와 같은 행적을 잘 배워서 우리도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훌륭한 마음을 배우고자 함”이라며 “종교란 서로 잘살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잘못 배우는 것이고, 이를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다투는 것은 올바른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명현관 해남군수, 윤재갑 국회의원,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서산대사의 뜻을 이어받아 실천하자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대흥사는 이날 호국대전 불사 원만회향을 위한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호국의승 위패 봉안을 위한 방안연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표에는 △김상영 전 중앙대 교수의 ‘〈호국의승열명록〉의 주요 내용과 발간의의’ △허상호 성보문화재연구원 팀장의 ‘호국의승의 문화재적 관점과 추모를 위한 불전기물 제안’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호국대전 내부공간 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서산대사는 1520년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나 21세 숭인장로를 은사로, 일선 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법명은 휴정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국에 격문을 돌려서 스님들이 구국에 앞장서도록 하였고, 문도 1500명의 의승을 통솔하여 명나라 구사와 함께 평양성을 탈환했다.

대흥사의 표충사는 서산대사의 영정을 봉안한 사액사우(賜額祠宇)로서, 대사의 위국충정을 기리고 그의 선풍이 대흥사에 뿌리내리게 한 은덕을 추모하기 위해 정조 12년인 1788년에 건립되어 전남 6개 고을의 부사, 군수, 현감, 그리고 대흥사 스님들이 봉향하도록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 생신상, 우리가 책임집니다”

진안 마이산 탑사 · 쌍봉사 12년간 孝잔치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쌍봉사(주지 보경), (사)붓다와 진안자원봉사센터가 12년째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한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11월 10일 진안 전통문화전수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진안군 관내 11개 읍면 75세 이상의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생신상을 차려드렸다.〈사진〉

행사에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 (사)붓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생신을 축하하는 케익을 전달하고 큰절을 올리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불 한 채도 전달됐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은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진안이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만수무강하는 고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보경 스님도 “추워진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반갑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인 만큼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